

삼성전기, MLCC 원재료 생산 확대

삼성정밀화학 보유설비 약 310억원에 인수 ... 완제품 시장지배력 강화

삼성전기(대표 최치준)는 주력제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원재료인 세라믹파우더 생산설비를 삼성정밀화학으로부터 인수한다.

잠정적인 인수액은 310억8000만원이며 인수시기는 6월로 알려졌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MLCC 기술 발전으로 원재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 인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설비 인수로 자체 생산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MLCC 원재료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안정적인 원재료 생산기반을 확보함으로써 MLCC 완제품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MLCC는 전자회로에서 전기를 저장한 후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전자기기에 수십-수천개 씩 투입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23>